

## ■ 연구원 소식

### ○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 지난 주에 2018년 기부금 영수증을 회원 여러분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후원본이 필요하시거나 전자우편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나눠주신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소 개

- 어현기(魚玄機844~868?)의 원래 이름은 유미(幼薇)이며, 자는 혜란(慧蘭)이다. 설도와 마찬가지로 당나라 때 여류 시인이다. 당무종 회창2년에 장안성의 교외에서 몰락한 선비가문에서 태어났다. 어현기의 부친은 시서를 많이 읽었으나, 평생 공명을 얻지 못했다. 어린 어현기는 부친의 교육을 받아, 5살 때는 수백편의 시를 외울 수 있었고, 7살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열 두어살 때 그녀의 작품은 이미 장안의 문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시동(詩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어유미의 재능은 당시 장안에 살던 대시인 온정균의 주의를 끌게 된다.

이번 주에 소개할 어현기의 시는 寓言(우언)이다. 우연히 현기가 남긴 시를 보게 된 이억은 깊은 감동 속에서, 작자인 여인에게 미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런데 온정균은 양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 이억과 교류한 적이 있었다. 그 인연은 마침내 이억을 온정균의 집으로 이끌었다. 그날 이억은 온정균의 서재에서 다시 현기의 시 「우언(寓言)」을 보게 되었다. 이억은 곧바로 온정균에게 현기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현기에게 비단옷 한 벌을 선물하였다. 이억은 현기를 선녀로 만들어주고 싶었을까? 위의 시가 「우언」이다.

‘쌍성(雙成)’은 서왕모(西王母)의 시녀 이름이다. 그녀는 스스로 도를 닦으며 옥으로 만든 생황을 불다가, 마침내 선녀가 되어 날아갔다고 한다.

## ■ 작품 및 번역

### 寓言(우언)

- 紅桃處處春色(홍도처처춘색)    곳곳에 붉은 복사꽃 봄빛이 완연하고
- 碧柳家家月明(벽류가가월명)    집집마다 푸른 버들 달빛도 밝은데,
- 樓上新裝待夜(누상신장대야)    누각 위엔 새 단장한 여인 밤을 기다리고
- 閨中獨坐含情(규중독좌함정)    규중에 홀로 앉은 사람 그리움만 머금었구려.
- 芙蓉月下魚戲(부용월하어희)    달빛 아래 연꽃은 물고기와 노닐고
- 彩虹無邊雀聲(채홍무변작성)    하늘가의 무지개에 참새 소리 나는데,
- 人世悲歡一夢(인세비환일몽)    인간 세상의 슬픔과 기쁨 한바탕 꿈 같으니
- 如何得作雙成(여하득작쌍성)    어찌하면 선녀 되는 일 이를 수가 있을까?

## ■ 역사 속의 오늘

### “나를 살려내라”(1988년 1월 30일)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와 당사자의 해명이 뒤엉켜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뒤덮었다. 1895년(고종 32년) 관제개혁으로 무안군에서 분리된 후 1897년 개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한때는 전국 3대항 6대 도시로 꼽히기도 했던 곳이다. 이같은 경제적 풍요와 근대화를 배경으로 많은 예술인을 배출해 예술문화를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

수많은 목포의 예술인 가운데 한국문학사에 이름난 문인역시 많았다. 극작가 김우진, 차범석, 평론가 김현, 소설가 최인훈, 시인 김지하... 오늘은 굵직한 선을 그었던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여성을 만나보고자 한다.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바로 전 해인 1904년 목포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15세에 소학교 선생으로 교단에 섰다. 일본 여자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한 최초의 한국여성이었다고 한국 문단에 등장한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 작가였고 장편소설을 집필한 최초의 여성작가로 줄곧 선구적 길을 걸었다.

그는 목포시 죽동에서 비교적 유복한 집 막내딸로 태어났다. 본명은 경순, 화성(花城)'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호이자 필명인데 11살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달리 소설을 좋아했던 어머니 김운선의 영향을 받아 7세 때부터 유충렬전, 구운몽 등 1백여권이 넘는 소설을 읽어낸 그는 『추석전야』가 이광수의 추천으로 1925년 《조선문단》에 발표되면서 문단에 나와 해방 전까지 많은 소설들을 창작했다. 『추석전야』, 『하수도공사』, 『비탈』, 『홍수전후』, 『한귀』, 『고향없는 사람들』, 『호박』 그리고 장편 『백화』, 『북국의 여명』 등은 일제식민지 시대에서 가난하고 핍박받는 도시빈민과 농민들의 참상을 삶의 현장을 답사하여 형상화함으로써 한국 리얼리즘 문학을 개척했다.

그가 활발하게 작품을 썼던 1930년대 소설경향에 대해 평론가들은 동반자적 작품경향과 더불어 풍부한 어휘와 탄탄한 구성력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김윤식은 "20년대 이미 데뷔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작가로서의 그의 역량에서 중요하며, 여류로서는 드물게 보는 사상성을 띤 작가"로 주목하였다. 백철은 "카프와는 직접 관련이 없이 작품활동을 한 사람이지만 이 경향파에 속하는 유력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재선은 "프로 문학의 공식성을 계승한 작가"로, 서정자는 "데뷔 당시부터 경향성을 띤 작품으로 등단...(중략)... 30년대 그의 문학에서 이 동반자적 경향은 그의 문학의 중요한 특색의 일면"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경향성은 1926년 목포를 강타했던 목포제유공장 파업 사건에 앞장서다 경찰에 체포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오빠 박제민에 배경을 두고 있는 이도 있다. 서른여덟 살 되던 1942년 오빠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더욱 저항문학에 빠져든다. 불혹의 나이를 넘긴 마흔한 살 때 찾아온 8·15가 몰고 온 이념 대립 현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빛을 한층 더 진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마흔여섯 살 때 일어난 한국전쟁의 비극으로 온몸으로 경험한 그는 갑자기 말문을 닫는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4·3항쟁을 배경으로 쓴 『활화산』을 덮어둔 채 발표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한동안 붓을 꺾었던 그가 문단에 돌아온 것은 1955년 쉰한 살 때였다. 당시 발표한 소설 『너와 나의 합창』과 『이브의 후예』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었지만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색깔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허구성과 여성 인권 의식에 대한 고민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유신독재에 돌입했던 1970년대에 이르러 『활화산』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휴화산』이 바로 그것인데 이 작품에서는 4·3항쟁뿐 아니라 여수순천사건까지 포괄한 이야기를 그려냈다. 팔순에 접어든 1984년에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 의용군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탓한 KBS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광고조차 못 하는 어머니의 가슴을 그린 『마지막 편지』를 발표하는 등 한국 사회가 가진 모순과 민인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삼학도를 바라보는 목포 갯바위문화촌에 자리잡은 목포문학관에 들어서면 그의 가계부와 일기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의 아픔을 피하지 않았던 그도 자상한 어머니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천승준은 문학평론가이자 기자였으며 둘째는 『황구의 비명』으로 유명한 소설가 천승세다. 막내 천승걸 역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며 번역문학가로 활동했다. 문단을 대표할만한 작가였으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그가 1988년 1월 30일 해질 무렵이었던 6시, 죽기 직전 남긴 말은 “**나를 살려내라**”였다.

기회가 된다면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를 찾아 여성성으로 작가 활동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 민인에 대한 애정과 여성성에 대한 선구적 삶을 지켜낸 작가 **박화성**을 만나 보길 권한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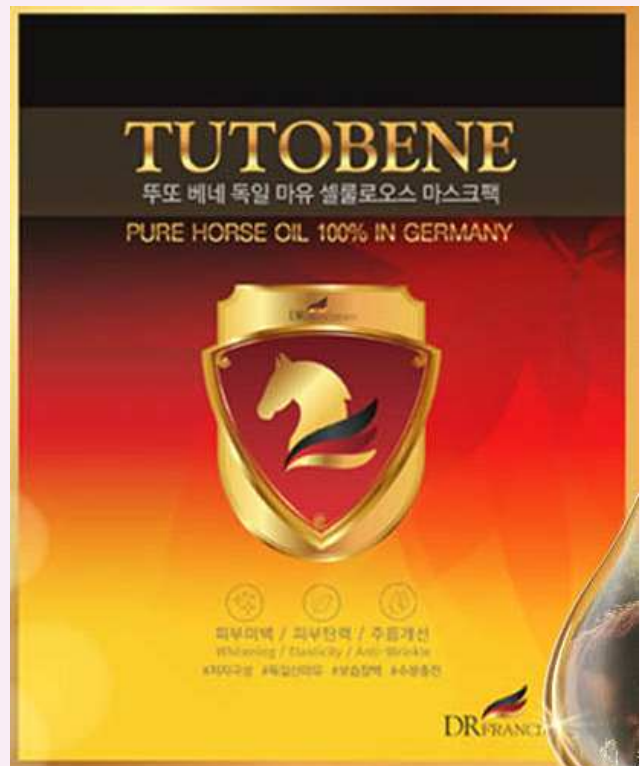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